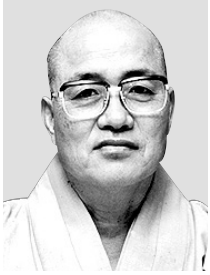


“모든것 마음이 만드니 내마음 근원 찾자”

마음 속 진리 법등 환히 밝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모두의 마음속에 진리의 법등을 환하게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삼계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으로 만든 것,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스스로 만든 것이니 우주만유(宇宙萬有)의 근본인 마음의 근원을 밝히지 않고 어찌 세상의 진실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만유의 진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마음의 근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마음이 참으로 찾기 어렵다(心心難可尋)”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마음을 찾겠다는 욕심에 가려져 참 마음을 못 찾는다고 하니, 찾겠다는 그 마음까지도 비워 버리고 빈 허공과 같이 모든 생각을 버린다고 하면 비로소 그 때 드러나는 참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어 맑고, 맑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와 남이 없는 일체된 마음으로 오래된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온 누리에 환히 비추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발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내몸처럼 돌보자

김희옥 동국대 총장



부처님 오신 따뜻한 봄날 세상의 모든 봄날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크나큰 대광명의 복덕으로 이 땅에 오신 봄의 부처님 생사고해(生死苦海) 해매는 중생들 건져주시고 가슴에 처음으로 꽃등불을 밝혀주셨습니.

위로 더없이 맑고 밝은 깨달음에 이르러도 한걸음 더 나아가 정등정각의 그 세계 일러주시 부처님 일평생을 걸어 걸어 향기 나는 바른 말씀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마다 심어주셨습니. 그렇게 세상의 봄은 오고 인간의 봄 또한 처음으로 왔습니. 새 생명의 부처님은 봄의 스승이시요 검은 바다 말바닥까지 밝게 비추는 대광명이시습니.

빛으로 오신 부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찾아오시는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은 그래서 스승의 날입니다. 역조창생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말씀 두루 전하여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동국대는 부처님 학교 중 가장 낮은 학교,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친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학교, 지혜와 자비가 못 생명의 평화와 함께 하는 학교이기를 부처님 전에 앞드려 서원합니다.

연등 축제로 부처님 뜻 기리자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세상 만물이 행복할 수 있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불교 집안에서 가장 큰 축제인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가 밝히는 작은 등불의 의미를 불자들의 가정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널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하며 그 곳에서 시작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사바세계로 오셨습니.

이 날은 탄신을 경축하는 국민적 축제임과 함께 부처님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을 다시 확신함과 동시에 깨달음을 향한 높은 뜻을 세워야 하겠습니.

법에 귀의하고 진리의 증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불자들이 가야할 길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향한 초심 회복합시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



부처님을 믿고 따르다는 것은 그 분처럼 살아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오셨던 때도 다투고 불의와 아픔 등은 있었습니.

그 분이 보여주신 삶의 여로는 그와 같은 관행들을 고쳐서 참인간의 모습으로 새롭게 소생하라는 메시지였습니.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고통은 더욱 첨예화되고 깊어지는 듯이 느껴집니.

우리가 그 분에게서 멀어져버려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과보(果報)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문제없는 문제'는 있겠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초심(初心)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을 향한 초심을 회복하는 일이 이 시대의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발심 그때가 곧 올바른 깨달음(初發心是便正?)

불법 수호 못해 참회합니다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삼계를 이끌어 주시고 못 중생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감립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 정성 감읍하옵고 귀하합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수행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지 못한 죄, 좌도(左道)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죄 깊이 참회하옵니.

위없는 부처님의 수승한 가르침을 수호하지 못한 죄,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려는 부처님의 유족(遺囑)을 받들지 못한 죄, 이 땅의 사부대중들이 상락아정(常樂淨土)을 누리기 위해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양을 가꾸지 못한 죄, 좌도(左道)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지 못한 죄 깊이 참회하옵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 부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방편(方便)이나마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

재정의 투명화, 계율의 실천으로 거듭나는 한국불교를 염원합니다.

참회업장원 깊이 새길 때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심을 수회 찬탄합니다. 어느새 우리사회의 화두는 소통과 화합입니다. 그만큼 갈등이 화합을 앞섰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들이 내 뜻에 순종해 주기 바라는데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요즈음 우리 주위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들러오는 소리 또한 어둡고 칙칙합니다. 포살은 수행자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계사를 모시고 계본을 읽으며 계를 범한 수행자가 대중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참회하는 의식이고, 자자는 안거의 마지막 날에 수행자들이 모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의 과실을 참회하는 의식입니다. 참회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과실을 고백하고 서원을 세우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참회계승 구절구절이 가슴에 와 닿습니.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반추하고 항상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임진년 사월초파일의 맞이하여 우리불자들은 다시 참회업장원을 새기고 새겨야 할 때입니다. 참회는 향상의 길로 들어서는 심주입니다.

국민 봉사 하화중생으로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석탄일은 불자로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바세계 중생의 힘겨운 삶에 자비와 안락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한 부처님의 49년간 전법의 원력이 사공의 경계를 넘어 우리들의 현재 삶 속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2500여 년 전의 과거 속 역사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력히 이루어져 실현되고 있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불법의 진리로 이루어가는 것이 곧 부처님을 경탄하고 장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불자연합회와 소속 불자들은 매년, 매일, 매순간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를 수행으로 삼아 상구보리로 향하고,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하화중생의 방편으로 삼아 자리아타의 삶을 완성하겠다는 큰 원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공무원불자로서의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연꽃 피워 나가길 발원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2000만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2556년 전 부처님께서는 무명의 마지막 고리를 끊고 광명의 본래면목을 증명하려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후 인류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

부처님이 켜 주신 지혜의 등불로 나를 밝히고 이웃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

매순간 순간이 불성의 발현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전 존재가 돌 아난 하나라는 진리, 그것이 인류를 깨어나게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 밝은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온 적이 많습니다. 나의 존엄성을 부정했으며, '나'인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

세상이 온통 신록으로 가득하고 못 생들이 살아있음을 찬탄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 번 부처님 전에 모여 당신이 오신 뜻을 되새깁니다. 갈등과 대립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깨어있는 불자이기를 기원합니다. 불꽃 속에 연꽃이 다시 피듯이 자비와 평화의 연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진공묘유의 불국토 건설을

임희웅 포교사단 사단장



부처님께서는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하시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어 고해 속에서 허덕이는 모든 중생을 건져 주십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길잡이가 되시어 구경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여 스스로 무명을 밝히는 포교사가 되고, 물과 같은 성품으로 하심(下心)하고 하심(下心)을 본심 삼아 가장 낮은 자세의 봉사를 통해 모든 분이 다 안락하고, 함께 부처를 이루는 그날 까지 신명을 바쳐 활동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

우리 모두 신행과 수행을 통해 무분별지(無分別智) 경계를 뛰어 넘어 대아(大我)를 이루는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의 경계에서 진공묘유의 실상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불국토 건설에 매진합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이 사회와 민족국가를 평화롭게 하고 화합과 감동을 주는 미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실체 없음에 깨어있기를

배광식 국제포교사회 회장



“신(神)이신가요?” 그들이 궁금해 하며 질문하였다.“아닙니다.” “그렇다면 천사?” “아니요.” “그러면 성인(聖人)이세요?” “아니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오직 깨어 있을 뿐.”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인류를 긴 잠에서 깨우는 위대한 선언이 있었습니.

“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성장하였으며, 인간으로서 부타를 이루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소멸합니다. 일어나는 생각과 모든 형상과 행위가 항상하지 않고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고 싫음에 물들지 않아 혼 혼한 자비와 밝은 지혜가 솟아납니다. 부처님께서 보이신 여덟 겹의 바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리석은 부처인 중생이 깨달은 중생인 부처가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바세계에 희망 일깨우길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슬픈 부처님 오신 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왔습니. 많은 이들이 환희 속에 맞이하는 기쁜 부처님 오신 날이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왔습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도 궁극적으로 마음에 달린 것이겠지만, 궁극의 마음에 이르기 전까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에 처지에 문제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이겠지요? 그러기에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우리네 세간은 힘들고 고통 받는 이들이 가득하기에 슬픈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유정무정의 가림 없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바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구원되어 있다고, 손을 잡아주시니 환희로 충만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왕이면 ‘마음에 평화 세상의 행복’이 부처님 오신 뜻을 깨닫고, 현대불교의 애독자들과 함께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여, 안녕!


부처님법 경탄하는 날로 맞자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시절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길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시진 않았습니.

올해 부처님오신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의 참 의미와 부처님의 법을 더 믿고 실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진실된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알릴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별은 어둠이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진리이며 세월이나 환경에 의해 퇴색되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은 그 진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어느 시절보다 더욱 환희심 넘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회원과 대한민국 모든 불자들은 다시 한번 부처님의 삶과 법을 마음속에 담아 그 어느 때 보다 기쁨 가득하고 부처님의 법을 경탄할 수 있는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NEW

친환경 삼베타울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울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울, 세안타울,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무료배송)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 F. 02)737-0696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